

- 일시 : 2015. 10. 14(수) 09:30~11:3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 1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윤섭, 배혜경, 심상용, 정종효, 최병식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 문예진흥기금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4차 지원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아트페어 부스 참가'를 지원하는 유형의 사업을 신청 받아 심의하였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보내준 건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자료 일체를 사전에 검토하였다. 또한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의결과 전체 토론을 통해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지원 금액은 신청자들이 제출한 지원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2. 세부 심의평

문예진흥기금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4차'사업은 총 28건, 지원신청 총액은 386백만원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8건을 선정하였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심의회의에서는 해외 미술시장에서의 활동 및 마케팅 역량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판단하였고 현지에서의 비중·인지도 여부를 고려하였다. 또한 신청 단체의 정체성과 국내외 활동 등을 검토하였고, 참여하고자 하는 아트페어의 규모와 세계 미술시장에서의 위치, 신청자(단체)의 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지원규모는 1~3차에 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력하였으며,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지원 금액 규모를 결정하였다. 상대적으로 신규 아트 페어 참가 지원이 적은 편이라, 갤러리들의 해외 미술시장 개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지역에 소재한 갤러리들은 지역 안배의 취지로 우선 검토 하였으나 갤러리의 활동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었다. 그 결과 선정된 18건의 사업은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향후 국제교류 파급효과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갤러리가 작가에게 부스 참가비나 작품 대납 등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선정된 단체들이 해외에서 한국미술의 위상과 역량을 알리는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